사회문화 트렌드 이끄는 윤여정 신드롬

패션, 광고, 극장가도 '윤며들다'

〈윤여정에 스며들다〉

맥주·패션 등 광고 모델로 활약
다른 시니어 연기자에도 큰 영향
'화녀' 이어 '죽어도 좋은…' 개봉

윤여정(왼쪽)이 새롭게 화려한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1971년 '화녀'로 자신을 스크린에 등장시킨 김기영 감독의 1990년 미공개 유작 '죽어도 좋은 경험:천사여 악녀가 되라'를 7월 선보인다. 사진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배우 윤여정(74)이 미국 아카데미 수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화려한 시대를 다시 한번 꽃피우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문화적 트렌드까지 이끌고 있다.

윤여정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려주는 가장 큰 가늠자는 광고 및 유통업계이다. 윤여정은 4월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이를 전후해 다양한 광고의 모델로 등장했다. 맥주·금융·정보통신·패션 등 브랜드 CF에서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광고에는 그동안 주로 젊은 스타가 모델로 나서왔다는 점에서 윤여정의 힘을 확인시킨다.

이런 흐름은 또 다른 시니어 연기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근 햇반컵반은 나문희(80)를 모델로 발탁했다. 그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비롯해 '수상한 그녀' '아이 캔 스피크'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젊은 관객과 소통해온 점도 힘을 보탰다.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리더스코스메틱도 강부자(80)를 모델로 내세웠다. 이승기, 양세종 등 젊은 스타들을 기용해온 흐름에서 벗어나 강부자가 춤을 추며 랩을 하는 CF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윤여정에 스며들다'는 뜻의 '윤며들다'와 그의 직설적인 화법에서 따온 '휴먼여정체' 등으로부터 시작된 윤여정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 또래 세대의 탈권위주의적 모습에 대한 젊은층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유행까지 만들어냈다.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할미룩(할머니 패션)' 등 신조어가 이를 말해준다. '옷 입는데 남의 눈치 볼 거 뭐 있니?' 등 광고 속 대사가 드러내는 당당함, 젊은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춤과 랩 등에도 거침없이 도전하는 열정 등이 윤여정 '신드롬'과도 맞물린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여정의 힘은 극장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1971년 시체스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겨준 스크린 데뷔작 '화녀'가 최근 재개봉한 데 이어 또 한 편의 주연작이 관객을 만난다. '화녀'의 영광을 함께한 김기영 감독의 미공개 유작(1990년) '죽어도 좋은 경험:천사여 악녀가 되라'가 7월 개봉한다. 두 여자의 욕망과 광기를 다룬 영화 속에서 윤여정은 악녀의 이미지를 내뿜는다.

윤여정은 4월26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고 "김기영 감독님께도 감사하다. 저의 첫 감독이었다"면서 "저의 첫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살아계셨다면 수상을 기뻐하셨을 것이다"며 김 감독을 떠올리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예능 베테랑' 강호동·이경규·송은이, OTT로 무대 확장

강호동 '머선129' '골라자봐' 새로운 모습
이경규는 '찐경규' '도시어부3' 통해 활약

강호동

이경규

송은이

'예능 베테랑'들의 변신이 시작됐다. 강호동·이경규·송은이 등 오랫동안 방송가를 주름잡아온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주 무대로 삼아온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신생 채널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도전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강호동은 카카오TV '머선129', 티빙 '신서유기 스페셜-스프링캠프' 등 OTT 콘텐츠를 최근 잇따라 내놨다. 이를 통해 1993년 데뷔한 이후 28년간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던 '아날로그 이미지'를 벗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공개하고, 2030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캠핑에도 도전하는 식이다.

최근 신규 케이블 채널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캠핑장 운영 관리자로 일하는 모습을 담은 '호동스 캠핑존-골라자봐'를 16일부터 디스커버리채널 코리아를 통해 선보인다. 연출자 엄진석 PD는 5월31일 "강호동은 신규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새로움'을 꼽는다"며 "안정적이고 익숙한 포맷보다 도전을 택하는 과감함이 '국민MC'로 평가받아온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구와도 함께 울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올리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규와 송은이도 유튜브와 OTT 등으로 무대를 옮겨 젊은 세대와 더 가깝게 소통 중이다.

이경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카카오TV '찐경규'로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많게는 100만뷰를 얻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어왔다. 콘텐츠를 통해 위아이 김요한·업텐션 김우석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도 친분을 쌓으면서 10대 시청자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를 얻었다. 지난달 공식 유튜브 계정을 만든 채널A '도시어부'의 제작진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영화 '영웅본색'을 패러디한 예고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송은이는 각양각색의 시도로 콘텐츠 제작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배우 라미란과 래퍼 미란이가 뭉쳐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프로젝트 듀오 '라미란이'를 기획해 화제다. SNS를 통해 듀오를 결성하는 과정을 드러내 재미를 안겼다. 직접 기획한 책 소개 프로그램 '북유럽 위드 캐리어'도 7일부터 공개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50만 향해 뛰는 '분노의 질주'

누적 174만9000명 돌파…극장가 활기

분노의 질주

'마의 250만'을 넘겨라!

영화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분노의 질주)가 200만 관객을 겨냥하면서 향후 한국영화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분노의 질주'가 최소 250만명의 관객을 불러들인다면 여름시즌 이후 한국영화 기대작의 잇단 개봉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3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분노의 질주'는 전날까지 누적 174만9000여명을 동원했다. 평일 평균 5~6만여 관객이 관람하는 추세여서 이번 주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쾌속의 흥행세라는 점에서 이후 추이도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26일 개봉한 '크루엘라'도 11만여명을 동원하며 극장가에 모처럼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추세가 여름시즌 '블랙 위도우' 등 할리우드 대작들의 흥행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영화 기대작의 극장 행도 차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분노의 질주'가 250~300만명을 동원하고 이후 극장이 활기를 조금씩 되찾는다면 '한산:용의 출현' '해적:도깨비 깃발' '모가디슈' 등 100억원 이상 규모의 한국영화 기대작도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며 개봉 일정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 관객수뿐 아니라 부가 및 해외 판권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상영 등을 통한 수익 등이 손익분기점의 새로운 잣대로 포함되는 추세에 250~300만 관객을 최소의 흥행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한 편의 영화가 250만~300만 관객을 모으고 이후로도 한 두 편의 작품이 엇비슷한 규모이거나 넘어설 경우 한국영화 대작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김소연 "천서진으로 곧 돌아옵니다" 연기자 김소연이 고혹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다. 김소연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조셉앤스테이시의 모델로 나서 우아함과 강렬함을 더한 분위기를 뿜어낸다. 그는 4일 첫 방송하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로 시청자를 만난다. 사진제공 | 더블유 코리아

연예뉴스 HOT 5

'폭행 사주 의혹' 진아림 "허위사실 유포 고소"

진아림

'여배우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남성을 지인을 시켜 폭행하도록 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연기자 진아림(박세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5월31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인의 주점에서 여배우가 무료로 술을 달라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SNS에 폭로한 뒤 여배우의 지인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진아림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타블로, 미국드라마 '네온 머신' 제작한다

타블로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가 미국드라마의 제작자로 변신한다. 5월31일 소속사 아워즈에 따르면 타블로는 최근 미국 드라마 제작사 아마존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고 제작에 나선다. 제작자로 참여하는 작품은 '네온 머신'(Neon Machine)이라는 제목의 코미디 시리즈이다. '네온 머신'은 타블로의 인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그는 미국 HBO 드라마 '배리'(Barry), '걸스'(Girls) 등을 집필했던 에미상 수상 작가 제이슨 김과 함께 2년간 작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운전 중 보행자 친 박용기 불구속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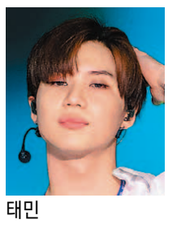
박용기

연기자 박용기(58)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5월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용기는 이날 오전 0시2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디그라운드, 단편영화 22편 상영

박찬욱·봉준호 감독의 초기 단편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인디그라운드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한국 독립영화사에 중요한 궤적을 남긴 1990년대 단편영화 22편을 상영하는 특별기획전 '안녕, 90's'를 연다. 1990년대 한국사회의 아이러니를 그려낸 봉준호 감독의 옴니버스 단편 '지리멸렬'과 타락한 인간상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박찬욱 감독의 블랙코미디 '심판'을 상영한다. 정지우 감독의 '생강', 정윤철 감독의 '기념촬영', 김태용·민규동 감독의 판타지 무비 '창백한 푸른 점' 등도 관객과 만난다.

샤이니 태민,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태민

그룹 샤이니의 태민이 5월3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소했다. 태민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한다. 그는 감염병 확산으로 이날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비공개로 입소했다. 태민은 샤이니 멤버 중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앞서 온유, 민호, 키가 제대했고, 샤이니는 2월 일곱 번째 정규앨범 '돈 콜 미'로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을 펼쳤다. 태민은 입소 전 SNS를 통해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